

# 매국노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골종행위는 남조선 각계층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강점의 40여년간 가장 잔인 무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며 수천만의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재난, 죽음을 강요하고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족속들이 바로 섬나라가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역적패당은 제멋대로 섬나라가들의 죄악을 무마해주고 제침의 칼을 버려온 친년속적의 길잡이, 디딤돌이 되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조선반도를 통째로 섬겨주려는 매국배들의 대죄악을 감행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친일사대매국죄악의 근원은 다른데 있지 않다. 친일에서 잉태되고 번식되었으 며 해방후에도 친일사대매국을

권력부지의 명줄로 삼아온 제 조상들의 죄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65년 6월 《유신》독재자가 섬나라가들과 남조선일본 《협정》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 수 있다.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유신》독재자는 미국상 전의 지령밑에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한 상태를 계속해 온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한일회담을 년내에 일괄결정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떠벌이면서 범죄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조각에 미쳐날뛰었다.

《유신》독재자는 남조선일본 《협정》에서 일제의 강제 《합병》에 대한 원천무효와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 배상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섬나라가들의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

으로》 타결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모든 죄악들을 덮어두고 과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대가로 겨우 푼돈을 구걸하여 받고도 그것을 《치적》으로 광고한 《유신》독재자와 그 패당들이다. 지어 역적 패당은 섬나라가들이 《1905년의 (조약) 이래 60년만에 다시 돌아 온 이해 을사년을 영광의 을사년으로 하자.》고 떠벌이자 《을사년에 리완용은 영광의 역사를 열어놓았다면 우리의 협정은 향후 백년의 영광의 역사를 열 것이다.》라는 매국당언으로 맞장구를 치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당시 《다 가까이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친일매국노 《유신》독재자에 의하 지 않았으며 섬나라가들의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

6월 22일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의 조각으로 끝나게 되었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에서는 일본과의 범죄적인 회담을 벌려놓고 《협정》이라는것까지 조작한 박정희매국 《정권》을 규탄배격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규모투쟁이 매일과 같이 계속되었으며 《유신》독재자는 종당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말았다.

지금 섬나라가들은 58년전에 조작된 남조선일본 《협정》을 구실로 삼으며 피어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치우면서 수십 년동안 버려온 제침의 칼을 치켜 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 패당은 2018년 남조선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강제지원피해 자들에 대한 배상관계를 내린것을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모

순된다. 일본은 침략자에서 《동반자》로 되었다. 과거를 덮고 미래에 나가겠다고 황실수실하면서 저들의 친일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자기의 임기중에 쌍방관계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제일 좋게 만들고싶다고 떠벌인 윤석열역적 패당은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윤제앙》, 《윤완용》으로 지탄받고 퇴진압력을 시달리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범죄행들을 비호두둔하면서 섬나라가들의 군사적재침책 등을 발뚱하고 도와주고있는 윤석열역적 패당은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팔아먹은 《유신》독재자를 훨씬 통가하는 특등 친일매국노가 아닐수 없다.

이런 매국노가 갈 곳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뿐이다.

본시기자 김정혁



매국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의 조각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1965년 6월)

친일 매국노 윤석열 몰아내자!

## 전쟁머슴들인 부침없는 객기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불장난소동이 날이 갈수록 빈번 해지고있다. 지난 8일에도 호전세력들은 부산해군기지에서 전투기와 함선, 장갑차, 무인수상정 등 각종 첨단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해상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시범훈련을 벌려놓는데 이어 9일에는 미육군 화생방부대장들과 대령살무가대응을 위한 연합훈련을 강화 하였다.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정신착란이상 의 광적인 증세로 넘어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남조선호전세 력이 단독으로, 외 세와 연합하여 벌 린 전쟁연습만 하 여도 꼽아보기 힘 든 정도이다.

외세의 전략자산 까지 끌어들여 남 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핑음과 불 구름으로 어지럽히 는것도 모자라 해 의에까지 나아가 전 쟁대결에 날뛰고있 는 남조선호전세력이다.

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 하여 각종 전쟁연습 들을 강화하면서 그 무 서 《위협》과 《도발》을 구 실로 내대지만 이번엔 강 행한 전쟁연습들의 명 칭이나 동원된 무장장비들이 실증해 주 듯이 어스겠지만 다 공화국 에 대한 침략적성격이 완

### 말 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집권 1년을 보낸 윤석열 (정권) 이 반민중, 반민 주, 친제법정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민중 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중해 방을 외쳤던 력사들의 정신 을 계승하자.》(6월인민항쟁 기념 제3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의 연 설문중에서)

— 《(독재라도 민주정 취) 를 쫓던 6.10민주항 쟁기념식에 불참한 리유가 (정권퇴진후) 때문이라니 이 무슨 웃지 못할 력사의 모순인가.》(6월인민항쟁 기념식을 주최하던 《행정 안전부》와 《국민의 힘》 것 들이 참가를 거부한데 대한 남조선인론의 비평중에서)

단평 《어디로 갈지 모르나》

얼마전 서울에서 《윤석 열이 오염수다》라는 주제로 초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수만명의 참가자들이 《윤석 열이 처리수다!》, 《윤석열은 바다에 방류하는 경우 세계의 바다가 죽 음의 바다》로 화하고 섬나 라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 치하고있는 조선반도주변의 바다가 제일 큰 피해를 입 지 되리라는것은 삼척동자 도 알 일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죽음 의 바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 한 일인가. 이런 어망치망한 일을

지금 철면피한 일본이 세 계의 면전에서 빠졌이 저 지르고있고 윤석열역적 는 일본것들의 이 반인 룹적행동을 목인비호하고 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 는다고 윤석열역적이 이렇 게 친일에 썩대로 썩대다 나니 《국민의 힘》것들 역 시 《일본의 핵오염수에 의 한 피해는 절대로 없다.》, 《수산물의 안전을 담보한 다.》, 《핵오염수를 직접 마시겠다.》고 망풍을 부려 대고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 자

장구를 치는 윤석열역적패 당이나 다같이 인류에게 백해무익한 존재들, 인간의

김영진



### 남조선언론이 주장 -

《어디로 갈지 모르나》 이란해도여야 하는 10가지 리유》

최근 남조선언론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권) 이 탄핵되어야 하는 10가지 리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하였다.

언론은 남조선정치사상 윤석열 《정 권》만큼 비렬하고 무능하며 무지하 고 잔인한 《정권》은 없었다고 하면서 역대 《정부》들마다 특징이 있지 만 윤석열 《정권》처럼 총체적으로 부 실한 《정권》은 없었다는것이 정설이 라고 주장하였다.

1. 무나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역적 패당은 《검사가 수사로 보복 하면 그게 광대이지 검사입니까?》 하 면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을 떠들더니 지금은 170여가지나 되는 자기와 제 가족의 부정부패혐의는 모 두 덮어버리고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외교파탄 역도는 외교를 한답시고 결핵하면 해외로 나갔지만 미국을 찾아가서는 《인플레이션억제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퍼주기》비난만 받았으며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을 강압적 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조선반도유사사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3. 경제파탄 역도는 15개월동안 연속 무역적자 를 내고 주민들은 고물가, 고회물, 고 금리, 난방비상승으로 허덕이고있으나 《주민복지》관련예산을 줄이고 부자들 과 대기업들의 세금 감소해주어 자영 업자들속에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항의가 비발치고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고있는 형편이다.

4. 《안보》파탄 《선제타격》, 《싸드》 추가배치 등을 떠들어대다가 강릉에서 북으로 발사한 미사일 이 되돌아와 남쪽군부대를 타격 하였으며 그 주제에 다른 나라에 수 십억US\$를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5. 《탄압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건설로조를 《진 폭》(《건설폭력배》)으로 락인하여 경 찰이 로동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류형사 태를 초래하였으며 《MBC》에 대한 압 수수색과 《YTN》의 민영화 등 언론 장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6. 《검찰공화국》 역도는 130여명의 검찰출신들을 《정 부》요직에 임명하였으며 지어 《금융 감독원》 원장과 《년금공사》 리사직 에도 검찰출신을 올려놓아 제 녀편네의 《도이치모터스주주조작사건》 등을 무 마시킴켜 하고있다.

7. 《무속공화국》 역도는 《대통령》선거때부터 손바닥 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다녀 물의 를 일으켰고 그후에도 해외에서의 조 의표시, 《대통령실》과 판지정정에 대 한 《천공스님》의 개입으로 《무속공 화국》이라는 말을 듣고있다.

8. 《잡사공화국》 역도의 집권후 백수심명이 한꺼번 에 사망한 특대형사고가 일어났지만 결가지만 자르고 정작 기본책임이 있 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청장은 비호하였다.

9. 《국회》무시 역도는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 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시행령 들을 망나니의 칼처럼 휘두르고있는데 이를 명백한 탄핵행이다.

10. 오만불손한 태도 역도는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 도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 이 뭐라고 하면 검찰만 믿고 칼을 휘두 르고있지만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 끝으로 언론은 남조선정치사상 이러 게 많은 탄핵리유가 있는 《정권》은 없을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 암흑의 땅에서 세차게 떠오르는 항쟁의 불길

지난 5월 1일 남조선에서 한 건설로조원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건설로조성원들을 《진폭》(《건설폭력배》)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윤석열역 적패당에게 항거하여 분신자 살을 시도하였고 다음날 2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 패당은 《민주로총》소속 건 설산업로동조합원들이 로동 의 권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한다고 하여 《건설폭력 배》라고 모독하며 파쑈경찰 을 내놓아 류혈적으로 탄압하 고있다. 역적패당의 이 파쑈 적폭거에 맞서 건설산업로조 는 물론 《민주로총》산하의 로조들과 《한국로총》이 반 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 고 이러한 속에 건설로조의 한 성원이 반로동정책에 항거 하여 분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것이다.

남조선로동계의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은 윤석열역적 패당의 반로동정책, 반인민적 약정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 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기업위주성장》과 《대기업 법인세인화》와 같은 친제법 정정책, 반로동정책으로 로동 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깎아먹는것도 성치 않아 인 간다운 삶을 위해 일떠선 로 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 고있다.

하기에 《민주로총》을 비 롯한 로동단체들은 《로동자 와 민중을 무시하며 지배세 력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윤 석열 (정권) 은 로동자, 민중 이 분명히 투쟁하지 않고서

《이대로 살수 없다.》, 《윤석열은 몰려나라.》, 바 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 심이다.

본시기자 전 명 진

